훈센 캄보디아 총리 비판 언론 폐간

장남 '월권' 보도에 발끈
VOD 방송 면허 취소 지시
해당 매체 "정부 대변인 인용 보도"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본인과 후계자인 장남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현지 언론을 폐쇄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13일 일간 크메르타임스 및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독립 언론매체인 '민주주의의 목소리'(VOD)에 대해 보도 및 방송 면허를 취소하라고 공보부에 전날 지시했다.

훈센은 VOD가 보도를 통해 자신과 장남을 공격하고 국가에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설명했다.

또 VOD 직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해외의 기부자들은 그동안 보낸 돈을 회수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행된다.

앞서 VOD는 지난 8일 캄보디아 정부의 튀르키예 강진 피해 복구 지원에 관한 보도에서 훈센 총리와 장남인 훈 마넷이 구호 협정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현재 캄보디아군 부사령관을 맡은 훈 마넷은 재작년 12월 2일 부친인 훈센 총리에 의해 후계자로 지명됐다.

이후 그는 외교 행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후계자 수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VOD의 보도는 현직 군인인 훈 마넷이 본분에서 벗어나 월권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VOD 측은 훈센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혼란을 일으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정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했기 때문에 보도와 관련해 문제는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훈센은 이런 해명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일축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2017년 말에도 일간 '캄보디아 데일리'가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폐간 조치한 바 있다.

훈센은 1985년 1월 14일 총리에 취임한 뒤 38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물 잔해 옆 절망한 튀르키예 주민들 강진 발생 1주일째인 1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동남부 카흐라만마라슈에서 한 주민이 무너진 건물 잔해 옆에 서 있다.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지방선거 재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시장 후보로 나선 기독민주당(CPU) 소속 카이 베그너(왼쪽)가 이날 자당의 대승을 예측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주의회에서 당원들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 야당 기민당 압승

사민당 최악 성적에 숄츠 충격

독일 수도인 베를린의 지방선거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이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에 큰 격차로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PD가 22년간 유지해 온 베를린 시정을 다른 정당에 넘겨줘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PD는 환경정당 녹색당과 강경좌파 '좌파당'(die Linke)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베를린 시정을 담당해 왔다.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가 홈페이지를 통해 전한 선거관리당국의 예비집계 결과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치러진 베를린 지방선거 재선거에서 CDU가 가장 많은 28.2%를 획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SPD와 녹색당이 서로 동률로 18.4%를 각각 얻었고 좌파당이 12.2%, 극우성향 '독일을 위한 대안'(AfD) 9.1%,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4.6% 등 순이었다.

예상 의석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한 153석 중 CDU 50석, 녹색당 33석, SPD 32석, 좌파당 22석, AfD 16석이다.

SPD은 2001년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1위에 오른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하고 지방정권 교체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SPD 득표율은 지난 2021년 9월 선거 때 얻은 21%보다 내려가며 2차대전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와 dpa 등 외신들이 전했다. 자칫하면 녹색당에 밀려 3위가 될 수도 있다.

2021년 9월 베를린 지방선거는 선거관리 부실 탓에 결과가 무효화돼 이번에 새로 선거가 치러졌다.

CDU 득표율은 2021년 선거에 비해 약 10%포인트 뛴 것으로 추정된다. CDU는 이번 선거에서 베를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시정에 총체적 문제가 있으며 극단적인 변화가 필요한 도시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연합뉴스

'인구 절벽' 닥친 중국 "젊고 건강한 남성 정자 기증 하세요"

산둥·윈난·하이난 등 기증 호소

중국이 지난해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출생률은 사상 최저로 떨어진 가운데 베이징뿐만 아니라 산둥, 윈난, 장시, 하이난 등 중국 여러 지역에서 정자 기증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산시성의 정자은행은 지난 9일 기증자들에게 정자 분석, 염색체 검사, 유전병과 감염병 검사 등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또 산둥성의 정자은행은 기증자에게 정자를 10년간 냉동 보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정자 기증을 지원하는 이의 소수만이 기준을 통과한다고 후베이성 추톈일보가 11일 전했다.

추톈일보는 정자가 초저온에서 보관돼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증 지원자의 불과 20%만이 그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산시성 정자은행의 한 직원은 기증자는 평균 남성의 3배에 달하는 정자 농도를 지녀야 한다며, 많은 남성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말했다.

2016년 중국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15년에 걸쳐 정자의 농도·수·활동성·정상적인 형태 등을 중심으로 한 중국 젊은 남성의 정자의 질은 떨어졌다.

해당 연구진은 2001~2015년 3만636명의 건강한 중국 남성에게서 7만개 이상의 정자 샘플을 채취해 분석했다.

그 결과 자격을 갖춘 기증자의 비율은 2001년 55.78%에서 2015년 17.8%로 급감했다. 또 정상적인 형태를 가진 정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31.8%에서 10.8%로 줄었다.

지난해 저널 '인간 생식 업데이트'(Human Reproduction Update)에는 세계 남성의 평균 정자 수가 1973~2018년에 걸쳐 52% 줄었다는 논문이 게재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美 국경 휴런호 상공서 미확인 물체 또 격추

중국 정찰 풍선 등 이어 네번째

미군이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휴런호 상공에서 F-16 전투기로 미확인 물체를 격추했다.

지난 4일 중국 정찰풍선이 격추된 것을 포함해서 미국과 캐나다 영공에서 비행 물체가 격추된 것은 이번이 모두 네 번째다.

미 국방부는 이날 동부시간 오후 2시42분 F-16 전투기가 미시간주 휴런호 약 2만ft(약 6000m) 상공에서 비행하던 물체를 AIM-9X 열추적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군 지도부의 건의에 따라 격추를 명령했다.

국방부는 비행체의 경로와 고도상 민간 항공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비행체가 지상에 대한 물리적인 군사 위협은 아니지만 정찰 능력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위협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상에 있는 주민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잔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격추 장소를 선정했으며 민간인이 다치거나 영향을 받은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 비행체가 전날 미국 몬태나주 상공에서 국방부의 민감한 시설 인근을 비행한 물체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일 동부 캐롤라이나 해안에서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했다. /연합뉴스